















의 발이 들어가는 '혹부리새' 라는  
이 있었다. "참는 것은 마음의 보배요,  
그는 자신이 조상 산임신림의 홍배  
에서 살게 된 편인과 마음을 절고 잊지  
않은 조상을 나누고 있었다.  
것이 되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 
감안되는 빛다. 이러한 삶을 인위감지  
신림을 방문함으로써 400여 년 만에



























